

##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투쟁의 시작

박윤준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7월 17일 건국대학교 상허문 앞에서 건국대 학생들과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건국우유 공동행동') 출범식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건국유업·건국햄(이하 '건국우유') 노조위원장(한국노총)이 찾아와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냐”며 수년째 적자라서 안 그래도 건국대 학교법인과 사이가 안 좋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유자는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사장실은 학내 다른 건물에 있는 건국우유 본사 사무실로 떠넘겼고, 본사 인사담당자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건국우유 사측에서 노조위원장에게 ‘기자회견 못하게 당신이 대화해보라’며 모종의 압력을 넣었을지도 모르겠다.

건국대는 건국우유를 비롯해 건대빌딩, 건국AMC(쇼핑몰), 더클래식 500(시니어타운), 스마트KU골프 파빌리온 등 여러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충주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수익사업체 연간 사업 수입이 2,500억 원에 이르고, 미사용 전기이월금이 1천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수익사업체별로 각각의 회계를 공개했던 2020년 이전 자료를 살펴보면, 건대빌딩의 임대사업과 쇼핑몰, 골프 사업으로 재미를 보고 있고, 건국우유와 시니어타운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021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건국대는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1조 460억 3,250만 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새삼 기업이자 부동산업자가 된 오늘날 대학의 현실이 보였다.

건국우유 공동행동 출범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던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리셀 참사가 불법파견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접한 건국우유 공동행동 구성원들이 곧

바로 건국우유를 떠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1999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풍산업 단지에 공장이 건설된 이후 언제부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국우유는 살균된 우유를 탱크에 보관하고, 우유곽에 담고, 밀봉하고, 포장하고, 분류·유통하는 작업 공정 중에서 자동화율이 낮은 포장 업무를 포함한 이후의 공정들을 사내하도급업체에게 맡겼다. 우유를 생산하는 큰 공장 중간에 벽이 하나 세워졌고, 한쪽에는 원청노동자들이 살균된 우유가 자동화된 설비에 따라 우유곽에 주입되고 밀봉되는 공정에 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포장 업무와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업무와 사용하고 난 초록색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세척하는 일을 담당했다.

건국우유 전체 노동자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50명 정도가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했고, 최근 고용노동부 총주지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명 중 33명이 ‘돼지인력’이라는 직업소개소와 ‘다움산업’이라는 정체불명의 업체 소속으로 일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장 증언들은 불법파견 문제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 곳에서 건국우유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원청 소속이고, 누구는 사내하청 소속, 또 누구는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 잘 모르는, 실제로는 직업소개소로부터 불법적으로 파견을 나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들 일용직 파견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직업소개소가 소개요금을 명목으로 도대체 얼마를 떼가는지도 모른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인권센터에 찾아온 A씨는 돼지인력을 통해서 건국우유 공장에서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세척하는 일을 하다가 사내하도급업체로부터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노동자였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직업소개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돼지인력 사장은 그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다. 매일 그의 일당에서 1만 원 넘는 임금을 소개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중간착취했지만 말이다.

직업소개소는 본래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를 중계해주고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법으로 정한 소개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체다. 현재 구직자(노동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임금의 1%만을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직업소개소는 무기한으로 임금의 10~20% 이상의 소개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한 <직업안정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에 해당한다. 직업소개소들은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노동자가 필요한 공장과 농장에 인력을 보내는 파견업체로 행동하고 있다. 돼지인력의 경우 성행했을 때는 500명 정도의 지역 노동자들(대부분 이주노동자)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 2024. 7. 17. 건국우유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사진: 스튜디오 알

비유컨대, 건국우유의 사내하도급업체는 건국우유의 ‘생산2부’에 불과하고, 직업소개소는 ‘인사관리팀장’과 다름없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 해고, 중간착취,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사관리팀장’(직업소개소)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 지시가 완료되어 일용직 파견노동자들이 모두 사내하도급업체에 직접 고용되었다. 하지만 거의 매년 건국우유가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하고 있기에 여전히 고용이 불안하고, 원청과 비교할 때 차별적인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전에는 폐지인력 사장님이 출퇴근시켜주기라도 했지만, 직접 고용된 A씨는 외곽에 있는 공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매일 같이 택시와 버스를 번갈아 타고 있다.

건국우유 공동행동은 진짜 사장인 건국우유가 모든 노동자를 고용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학교 법인이 같은 공장에서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고용과 사용을 분리시켜 노동권을 박탈하는 파견의 문제가 여전히 사내하도급 구조에 남아있다. 건국우유가 계약직 관리사원에 불과한 사내하도급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건국우유가 불법파견, 간접고용 구조를 철폐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안티**